

전주 출판문화 · 핸드메이드가 하나로

완관본의 중심지였던 전주의 출판문화와 핸드메이드(수제작)가 결합된 손으로 만든 책 전시가 '전주 핸드메이드시티 워크 2017'을 찾은 관람객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내 공예품전시관에서 진행되는 '전주 핸드메이드시티 워크 2017'의 테마전시인 '서포중흥 전시'에서는 독특한 모양의 책과 아트북 등 책 제작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서점의 옛말인 '서포(書舖)'에서 이름을 딴 이번 서포중흥 전시는 완관본의 중심지였던 전주의 출판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마련한 전시로, '전주시민이 만든 한권의 책'과 '手BOOK(수북) 컬렉션'으로 구성된 전시 관람을 통해 전주의 수제작 기술과 출판문화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고 전주의 공간과 전주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엿볼 수 있다.

먼저, '전주 시민이 만든 한권의 책' 전

▶ 전주 핸드메이드시티 워크 2017 '서포중흥 전시'

'전주시민이 만든 한권의 책' 전시회에선 전주에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 담긴 '수제작'

'手BOOK 컬렉션'에선 창의적 모양 담은 50여점의 국내·외 수제작 전시

시에서는 단순한 수제작이 아닌 전주의 공간과 사람이야기를 담은 '전주 수제작'이 전시됐다. 시민공모를 통해 모아진 40여개의 이야기에는 전주에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와 지켜야 할 전주의 명소들이 담겨 있다.

공모에 참여한 조혜정(전주시 완산동·44)씨는 "내 인생에서 전주를 떼고 이야기할 수 는 없을 것"이라며 "전주에 살며 좋았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전시 후에는 책의 내용을 채워준 시민들에게 책을 제작해 선물할 계획이다. 또한 '手BOOK 컬렉션' 전시에서는 책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모양과 기법을 담은 국내·외 수제작이 전시되고 있다. 독특한 모양과 재질로 만들어진 책, 해외 독립출판사의 다양한 출판물, 아트북 등 50여점을 모은 이번 '手BOOK 컬렉션'은 관람객들이 출판·인쇄 위주의 책으로 인해 가졌던 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기회가 됐다.

전시장을 찾은 한 관람객은 "사각으로 만들어지는 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전시를 보며 책이 다양한 모양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런 전시가 열리는 때에 한옥마을에 놀러 오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서포중흥 전시를 담당할 이세영 프로젝트메니저는 "완관본이 손의 가치와 만나 그 맥을 잇는 작업이 서포중흥 프로젝트로 이번 전시는 그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옛날의 명성과 쓰임을 되살려 수제작 제작과 1인 출판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손 기술들과 손 글씨들, 이야기들이 모여져 작지만 소중한 출판 관련 소규모 창업자들이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주 핸드메이드시티 워크 2017'은 오는 28일까지 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과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등 전주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김영재 기자

전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위탁기관 공개모집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의 위탁기관을 오는 3월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전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은 도내의 문화적 특색이 반영된 관광기념품을 개발 및 보급하여 관광브랜드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전북도 관광총괄과에서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결정해 (재)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 개최, 판매관 설치 및 운영, 선정작 유통판매 지원 및 홍보마케팅 등이 있다.

이병천 대표이사는 "공모전은 직접 개최하고, 판매관 운영 및 설치·선정작 유통판매지원 및 홍보마케팅은 위탁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배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국내 판매와 더불어 해외 판매 및 홍보마케팅에 주력하여 전북도 대표 기념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생산업체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을 기대해 본다"고 했다.

/정해은 기자

무주산골영화제 스폰서·기부기업 모집

영화를 사랑하고 자연과 휴식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어울림의 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가 5회를 맞이해 영화제를 함께 이끌어갈 스폰서 및 기부기업을 모집한다. 무주산골영화제에 스폰서로 참여를 원하거나, 무주산골영화제를 기부금 단체로 지원하여 기부를 원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모집 분야로는 현금 및 현물 협찬 방식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한 지정 기부 방식으로 구분되며, 참여한 기업은 영화제 기간 동안 브랜드 영상광고 상영, 각종 인쇄 광고 및 옥외 홍보물, 로고 및 지면 광고 등 금액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더불어, 행사 기간 내 관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부스 운영 및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이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23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별도의 지원서 작성 없이 우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은 무주산골영화제 홈페이지 (<http://www.mjff.or.kr>)를 참고하거나 사무국 사업마케팅팀 (063-220-8253/mjff@mstf@naver.com)으로 문의 가능하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영화소풍'을 콘셉트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영화도 보고 자연도 즐기는 낭만 휴양 영화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2016년 4회에는 2만6,000여명의 실 관객이 영화제를 방문하며 매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는 6월 2일부터 6월 6일(화)까지 무주군 일대에서 진행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시립미술관 소장품 기획전시 '봄을 보다'

어느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봄, 정읍시립미술관이 '봄'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展)를 갖는다.

시립미술관은 3월 2일(오후 2시)부터 26일까지 정읍시립미술관 소장품 기획전시 '봄을 보다'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올해 초까지 시립미술관에서 수집한 작품들 중 '봄'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시립미술관에서의 첫 소장품전이다.

미술관은 "국내·외에서 분야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48명의 다양한 장르의 소장품 중 '봄'이 연상되는 평면과 입체작품 62점의 전시를 통해 작가들의 창작 세계를 통해 여유롭게 파스한 봄의 정취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소개했다.

또 "이번 첫 소장품 전시는 미술관의 기틀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작가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미술관이 정읍문화의 한 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정착하는 시작점으로 접근해 보고자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시에서는 연계 프로그램으로 일반시민들을 위한 체험 코너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단기 체험프로그램으로 '미술관 똑딱 아티스트'와 '정규프로그램인 어린이 뮤지엄클래스'도 운영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미술가 추가 선정

김진열·왕 유웬 파르자나 등 3명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장석원)은 2017년도 상반기 전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할 미술가 3명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술관 자체심사를 통해 선발된 김진열·왕 유웬·파르자나 아메드 작가는 지난 2월 1일부터 입주해 있는 김원·박성애·소보람·이기갑 기존작가들과 함께 짧게는 1개월, 길게는 5~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작품 창작활동에 매진할 전망이다.

김진열 미술가는(1962년생) 강원도 출생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산업미술대학원을 졸업했다. 상지영서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전북도립미술관에서 기획한 국제전 '아시아현대미술전 2015' 전시에 참여했으며, 제2회 박수근미술상을 수



김진열



왕 유웬



파르자나 아메드

상한 바 있다. 입주기간은 오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왕 유웬(Wang, Yu-wen) 미술가는(1976년생) 대만 출생으로 2003년 국립 타이베이 예술대학 예술학 석사와정을 졸업했다. 회화를 전공한 그는 페인팅 작업 이외에도 대지에 설치미술 작품도 다수 발표하고 있다. 입주기간은 오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파르자나 아메드(Farzana Ahmed) 미술가는(1980년생) 방글라데시 콜라(Khulna) 출생이다. 전북도립미술관에서 기획한 국제전 '아시아현대미술전 2016' 전시에 참여했으며 2016년도 방글라데시 다카 아트 페어에 참가해 수상 후보자로 지명되기도 했다. 입주기간은 오는 2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정해은 기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클래식 공연 장르의 패키지 티켓을 처음 도입한다.

이번 클래식 시리즈 패키지 티켓은 기존의 대중·연극공연 외에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지역 내 클래식 공연 애호가들에게는 호기다.

시리즈는 총 4팀으로 구성된다. 이들 선정기준은 2017년 클래식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아티스트들로, 마니아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클래식 공연과의 특별하고 새로운 만남을 기대할 수 있는 공연들로 채워진다.

첫 번째 공연 '성민재&조운성 듀오 콘서트(4월 15일·7시 30분)'는 더블베이스와 재즈피아니스트의 만남으로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들며 기발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소리문화전당, 클래식 공연 패키지 티켓 도입

이어지는 '스테판파제키&지용(6월 24일·7시 30분)'은 슈만·브람스·클라라 슈만의 러브스토리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말할 듯 말하지 못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다.

또한 대한민국 실내악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8월 26일·7시 30분)'의 공연에는 실내악 분야의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노부스 콰르텟이 무대에 설 예정이다.

마지막 공연은 우리 지역 출신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바이올린 리사이틀(11월 11일·7시 30분)'이다. 도내 첫 독주회로 기타리스트 이정

민과 함께 바이올린&클래식 기타의 전설적 레퍼토리인 파가니니를 선사한다.

이번 시리즈는 개별 티켓 외에도 4회 공연 패키지 티켓으로 할인 판매된다. 도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무대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로 80매 한정 판매된다. 패키지 티켓은 35%가 할인된 15만6천원으로, 24일 오후 2시부터 구매 가능하다.

전당 관계자는 "소리의 전당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심 받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트렌디한 공연들을 선정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클래식 공연을 선보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특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2월 24일)

<p>▶쥐띠 48년생: 금전으로 인해 사람을 잃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60년생: 겉으로는 서로 웃으나 속은 다른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속을 보이지 마라. 72년생: 경쟁자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운이다. 84년생: 뒷사람으로 인해 일이 성사된다.</p>	<p>▶소띠 49년생: 타인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 61년생: 금전운은 좋으나 작은 성공이나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주의하라. 73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이니 매사에 주의가 필요하다. 85년생: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의 조언을 구하라.</p>	<p>▶호랑이띠 50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운이니 화합을 도모하는 지리는 불리하다. 62년생: 사교수가 있으나 윤행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74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찍 움직여라. 86년생: 신체적 컨디션이 좋지 않은 운이다.</p>	<p>▶토끼띠 51년생: 문서로 인한 금전지출은 줄으나 다른 투자나 투기는 삼가는 것이 좋은 운이다. 63년생: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생긴다. 75년생: 금전적으로 이득이 따르는 운. 87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구설수가 따른다.</p>
<p>▶용띠 52년생: 아랫사람에게 경사가 따르는 운이다. 적극 도와주라. 64년생: 먼저 배풀고 진행하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76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니 감정에서 빠져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88년생: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마라. 상대와 반목할 뿐이다.</p>	<p>▶뱀띠 53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운이다. 65년생: 감정에 치우치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77년생: 다른사람의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89년생: 겉으로는 서로 웃고있으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속이 있는 이야기는 삼가라.</p>	<p>▶말띠 54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니 투자나 투기는 삼가는 것이 좋겠다. 66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 78년생: 어려운 일이 있다면 자존심을 버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 90년생: 미뤄왔던 공부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날이다.</p>	<p>▶양띠 55년생: 금전적으로 기운이 좋다. 67년생: 사소한 일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생기니 마음을 다스리고 충돌하지 말아야 하겠다. 79년생: 금전적으로 손재수가 따른다. 91년생: 어려움이 있을때에는 손윗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p>
<p>▶원숭이띠 56년생: 손아래 사람에게 도움 받을 일이 생긴다. 68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중간중간 막히는 일이 발생하니 방식은 금물이다. 틀리더라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야 할 때. 80년생: 좋은 일하고 뺄 맞는 격. 나서지 않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92년생: 건강이 좋지 않은 운이니 윤행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p>	<p>▶닭띠 57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니 불필요한 연정은 피하라. 69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득을 얻게 되니 커피라도 대접하라. 81년생: 미뤄왔던 문서 정리나 문서를 주고받기에 좋은 운이다. 93년생: 정신이 맑지 않은 운이다.</p>	<p>▶개띠 46년생: 겉은 화려하나 실속이 없으니 내실을 다지는것에 신경써라. 58년생: 지출이 심해지는 운이다. 70년생: 모든일을 혼자서 감내해야 하니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82년생: 이성과 함께 일을 도모하기에는 좋은 날이다.</p>	<p>▶돼지띠 47년생: 가족들과의 불화가 생긴다. 59년생: 받으려고 하지 말고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고 상황도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되는 운이다. 71년생: 발늦게 다니면 출항일이 발생하지도 모르니 조심하라. 83년생: 이상으로 인해 관련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p>